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삼성·현대차, 우수인재 영입 팔 걷었다

삼성전자, 하반기 반도체 대거 채용
DS 부문 올해 2번째 경력 공채
현대차, 미래기술분야 대규모 선발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인재 영입에 속도를 높인다. 연구 개발 부문 핵심 인재 확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하반기 반도체(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대규모 경력 채용에 나선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 투자 확대 기조에 맞춰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며 초격차 유지에 집중한다. 이번 주에는 대졸 공채 서류 접수도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오후부터 약 3주간에 걸쳐 2021년 하반기 DS부문 경력사원 채용 서류접수에 돌입했다. 근무지역은 화성, 기흥, 수원, 평택, 천안 및 운양 사업장이다. 지원자는 학사 학위 보유자로 경력 4년 이상(석사는 2년 이상), 또는 박사 학위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경력사원을 모집하는 분야는 DS부문 산하의 메모리, 시스템LSI, 파운드리, 반도체연구소, TS



서초동 삼성전자 전경.



/뉴스시스 양재동 현대차 사옥.

P총괄, 글로벌인프라총괄, DIT센터, 생산기술연구소, 종합기술원 등 10개 사업부 50여개 직무 군에 한해 채용이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올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2월에도 DS 부문 10개 사업부에 걸친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만 벌써 2번째 경력사원 공채를 진행하는 DS부문은 IM(IT&모바일), CE(소비자가전)까지 포함한 삼성전자의 3대 사업부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전자 임직원이 11만여명인데 DS부문 소속만 절반 이상인 6만1600명에

달한다. 삼성은 TSMC, 마이크론, 인텔 등과 벌이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격화로 우수 인재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력 채용과 별개로 이번 주 중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만형인 현대차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구축을 위해 대규모 미래기술 분야 인재 발굴에 나선다. 현대차는 27일까지 3주간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개발본부 신입 채용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채용으로 자율주행,

로보틱스,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및 인포테인먼트 기술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차량개발 프로젝트 관리, 연구개발 기획/경영, 차량아키텍처 개발, UX/HMI(사용자 환경)개발, 사시시스템 개발, 바디시스템 개발, 차량 성능 평가 및 개발, 차량 재료 개발,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동화 시스템 개발,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버추얼 개발(차량/전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개발, 로보틱스, 기초선형

연구, 상용 차량 개발 등 총 19개 분야의 신입 000명을 선발한다.

모집 대상 자격은 국내외 학·석사 학위 소지자 및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로, 각 분야별 자격요건과 수행직무 등 세부사항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채용 홍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town)’을 활용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진행한다.

현대차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통해 메타버스 안에서 신기술/신차종 관람, 직무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려주는 직무 레터 및 직무소개영상, 직무별 상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6일부터 8일까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채용 홍보 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채용은 기업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경력과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부문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불안전 요소, 처음부터 막는다”

포스코, 협력사와 안전사업장 구축

최정우 회장 “안전, 최우선 가치”
협력사의견 반영 프로세스 운영
총 97건의 협력사 개선의견 반영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투자시 협력사로부터 안전 관련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작업자 관점에서 불안전하다고 느끼는 요소들을 처음부터 해소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포스코는 노후설비 교체, 설비 신설 등 제철소 설비투자를 할 때 해당 설비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협력사들로부터 안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정우 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안전’ 경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올 초 신년사 및 제철소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아 일터를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안전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최정우 회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 지시를 받거나, 신체적 혹은 정서적 요인으로 인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작업자들은 이에 대한 거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직원들의 권리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작업 중지권을 직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철저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취하느라 생산이 미달되는 것은 앞으로 책임을 물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포스코는 협력사의견 반영 프로세스는 개선의견 청취, 설계 반영, 점검의 3단계로 운영된다. 제철소 설비투자사업시 투자 검토 단계부터 해당 설비와 관계된 협력사의 안전 관리 개선 의견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투자 발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협력사가 포스코의 안전·조업·정비 부서 등과 함께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후에도 협력이사가 설비 점검에 직접 참여해 개선 아이디어가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프로세스 도입 이후 최근까지 제철소 설비투자사업에 총 97건의 협력사 개선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내년 초 착공 예정인 ‘광영 3, 4, 5 고로 송풍설비 교체 사업’의 경우 송풍설비를 정

비하는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해 펌프 등 무거운 물건들을 편리하게 옮길 수 있도록 호이스트(고리 모양의 훅을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는 장치)와 레일을 설비 상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추진해 투자가 완료된 ‘포항 2냉연공장 수처리 냉각탑 분배조 교체 사업’에도 협력사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탑 상부에 설치하는 분배조와 분배조커버를 내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로 제작해 부식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커버의 돌출된 손잡이도 작업자의 발걸림의 위험을 고려해 맨홀처럼 내부 삽입 형태로 변경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설비투자사업 추진 시 제철소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함께 안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투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꾸준히 안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협력사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다.

또한 올 초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협력사 직원들도 누구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안전한 작업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제주감귤 팔고 반려동물 장난감 주고

국내 LCC업계, 차별화 프로모션 ‘활발’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객 부담 ↓
요금 할인·경품 등 혜택 제공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지역 기반 저비용항공사(LCC)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나선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여행객들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부산벤처 기업 ‘투어스테프’와 제휴를 맺어 초소형 친환경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인 ‘투어지’ 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투어스테프에서 운영 중인 투어지는 초소형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로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 예약부터 반납까지 모두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요 관광지도 편하게 둘러볼 수 있어 MZ세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차량 대여는 벅스코 및 오시리아역 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전 노선 탑승객 대상으로 투어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투어지 요금은 ▲주중(월~목) 2만 8000 원 ▲주말(금~일) 3만 6000 원이지만, 에어부산 탑승객은 ▲주중(월~목) 2만 원 ▲주말(금~일) 3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해당 금액은 보험료가 포함된 4시간 기준이며, 할인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제주항공은 9월 1일부터 기내 에어카페에서 제주감귤과 황금향 판매를 시작한다. 고객들은 기내에서 제품 구매 뒤 제주항공 ‘실렘배송’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원하는 곳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하우스감귤은 ▲2.5kg 2만원 ▲4.5kg 3

만 3000원이다. 황금향은 ▲3kg 3만원 ▲5kg 5만 2000원이다. 모든 구매 고객들에게는 제주감귤로 만든 과즙음료 ‘삼금하귤’도 제공한다.

제주항공 에어카페에서 판매하는 제주감귤 ‘굴로장생’은 제주농협이 직접 수탁해 선별, 유통, 관리하는 제주특산 감귤 대표 브랜드로 비파과 광센서 검사를 통해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감귤만 판매한다.

또 제주항공은 백신 접종을 예약한 제주항공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안심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주항공은 6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백신접종 예정일을 등록한 후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국내선 최대 4000원·비즈니스 라이트 2만 5000원)을 제공한다.

티웨이항공은 6일부터 특별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서비스인 티펫(t'pet) 시즌 2를 진행한다. 티펫 시즌 2는 티웨이항공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연결되는 ‘안전지킴이’ 테마의 경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애완동물 동반 탑승 때 제공되는 스탬프 쿠폰 2개 적립 시 항공 정비용 렌즈 모양의 티그놀이 장난감을 제공한다. 스탬프 4개 적립 시 반려동물용 항공 안전조끼, 6개 적립 시 반려동물 무료 탑승 1회와 ANF 독 홀리스틱 유산균 사료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티웨이항공 취항 공항지점별 재고 소진 시 종료되며 스탬프 6개 적립 시 반려동물 무료 탑승 1회 혜택은 계속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